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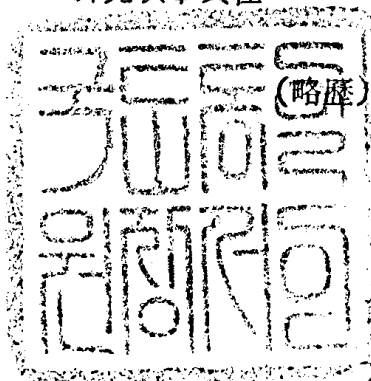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分斷國調查研究

# 西獨의 統獨對備政策研究

研究執筆責任

李 泰 永



(略歷)

Bonn大學 史學科 卒 (1957)

Wien大學에서 博士學位 取得 (1961)

東國大教授 및 東歐問題研究所長(1963-1974)

Köln大 史學科 研究教授 (1969. 9-1972. 2)

誠信女師大·淑大講師 (1976~현재)

刊行責任

張 榮 敏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1. 序 論 .....	3
2. 西独의 統独对備実態 .....	7
가. 유럽平和에 연결지운 統独의 長期達成論 .....	7
나. 对東独 政治協商의 進陟 .....	11
다. 經濟協力の 実態와 諸 規定事項 .....	16
라. 社会·文化 및 体育交流의 協力実況 .....	23
마. 通信交流의 大成果 .....	31
3. 東独의 統独觀 .....	35
가. SED의 立場 .....	35
나. 東独内 反体制클럽의 主張 .....	38
4. 結 論 .....	45
가. 東独의 統独論을 包容하는 西独의 統一政略 .....	45
나. 西独이 그리는 統独후의 国民国家像 .....	47
Summarium ( 独文要約 ) .....	53



## 1. 序 論

獨逸統一을 論할때 우리는 흔히 「再統一」(Wiedervereinigung)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再統一이라고 하면 分斷된 東·西獨이 예전의 國家形態(國民國家, Nation State)에로 되돌아가는것을 聯想하게 된다. 그렇다면 <一民族 二國家論>과 <二國家 二民族論>으로 맞서고 있는 西獨과 東獨이 基本條約 締結로써 現象을 固定化해 버린 마당에서 무슨 統一 論議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統一對備政策을 樹立·구사할 수 있는냐는 疑問이 떠오른다. 바로 이 점이 <西獨의 統一對備政策>이라는 本課題를 研究하기 힘든 점이다. 그러나 基本條約은 긴 眼目에서 보면 결코 <分斷條約>(Teilungsvertrag)이 아니고 東·西獨의 再結合을 위한 일 뿐 아니라 西獨은 지금 이를 바탕으로 統獨을 對備하는 諸政策을 驅使하고 있기 때문에 이 課題의 研究가 試圖되는 것이다.

東·西獨이 지금 <一民族 二國家論>과 <二國家 二民族論>의 民族論爭을 가끔 벌이고 있지만, 東·西獨의 住居民 대부분이 그들이 獨逸人임을 자처하는 동시에 統一을 원하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그렇다면 왜 저들이 統一을 원하며 또 다른 分斷民族도 統一을 熱望하느냐는 問題가 提起되는데 이 問題의 解答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지금 東·西文明이 統合에로 흐르는 高度의 産業化時代에 살고 있지만 國際社會나 그 共同体를 形成하는 單位는 의연히 民族이요, 國民國家이기 때문에 모든 分斷國家는 그 再統一을 熱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民國家의 理想은 19世紀의 遺産이지

만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理想視되기 때문에 우리를 分斷民族은 再統一을 그토록 熱望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東·西獨도 再統一을 바라지만 지금 東·西獨人이 再統一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獨逸의 内外与件이 再統一을 許容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 자신도 單純히 예전의 國家狀況에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敗戰以後 30年을 지나오면서 獨逸의 國論은 많이 변해왔다.

1950年代의 獨逸人들은 「히틀러 獨逸」의 罪과에 대한 反省과 더불어 아데나워首相의 宰相民主主義를 묵묵히 따라갔다. 그 結果 그들이 얻은것은 오늘의 豊요한 國民生活을 뒷받침하는 經濟大國의 基盤이었다. 그러나 아首相의 統獨策은 힘의 優勢를 통해 東方을 억누르고 統獨에로의 行動半徑을 넓히자는 소위 <힘의 政策>이었지(대서방 일변도 外交, 단독대표권 및 할슈타인 독트린 등이 모두 同政策의 産物임) 和解 및 交流를 통한 자유행위권의 擴大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의 統獨策은 그當時 國民 大多數의 支持를 받았다. 그 理由는 첫째 同政策이 50年代의 東·西狀況(冷戰體制)에는 合당한 것이었고, 둘째 國民의 政治的 思惟가 「保守的인 獨逸政治」의 범주에 限定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0年代의 國論은 그것이 아니었다. 國際政治의 緊張緩和 趨勢에서 먼저 이룩되어야 할것은 유럽의 平和와 安保라는 것을 깨닫고 이 世 獨逸人들은 「獨逸의 分斷이 持續되는한 유럽의 平和는 없다」라는 従来の 統獨觀을 「유럽의 平和가 維持되지 않는한 獨逸의 分斷은 초극될수 없다」로 바꾸게 되었다. 獨逸人의 政治的 思惟

가 위와 같은 變換을 가져옴으로써, 接近, 和解, 關係正常化, 交流增進의 平和政策的인 統獨策이 驅使되기 始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國論의 變化가 獨逸人으로 하여금 "연착된 통일호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통일호의 終着駅을 向해서 걸어가자"는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이다. 즉 統一호의 終着駅을 向해서 걸어간다는 統獨策은 유럽의 平和를 위주로하여 獨逸分斷의 초극을 長期的으로 試圖한다는 政策인데, 이를 專擔한 현 사민-자민聯政은 "承認", "武力拋棄와 交流增進을 위한 外交關係의 樹立", "감군협상", "유럽의 平和·安保體制에 東獨을 끌어드리는 작업"이라는 4段階的 推進을 立案·驅使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지금 基本條約締結에 따른 交流增進을 實現하고 있으므로해서 事實上 4段階的 推進案중 第2段階를 마무리 짓고 있는 판국이다. 남은 第3, 第4段階의 國家的 企劃·實現은 東·西의 불력體制에 얽힌 소위 外的 要因의 變化가 크게 作用해야 할 段階이기 때문에 혹자는 한 세대 또 혹자는 두 세대를 예견하고 있지만 아직은 막연한 段階에 있다.

筆者는 本課題를 考察함에 있어 基本條約締結以後 西獨이 統獨對 備를 위해 諸交流(政治, 經濟, 通信, 社會·文化 및 體育등 諸分野)의 增進을 어떻게 試圖하고 있나를 먼저 자상히 다루어 보았다. 즉 可及的 마찰없는 交流增進과 協力을 위해서 施行細則을 如何히 세워나가고 있으며 얼마만큼 交流增進이 되었나 하는 그 內訳을 列挙해 보았다. 그리고 西獨側의 이러한 統獨對策이 노고에 비해 東獨은 어떠한 統獨觀을 가졌으며 그 反體制클립에서는 어떠한 統

獨論을 提議하고 있는가도 檢討해 보았다. 그리고 結論部分에서는 保守性과 偏狹性을 脱皮한 70年代의 西獨政治가 <先平和 後統一>의 統獨原則下에 東·西歐 國家의 協力을 위해 어떻게 寄與하고 있고 또 그 반면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同族의 從屬感情을 持統시키기 위해 靑少年의 民族教育을 어떠한 方法으로 勸獎하는가도 檢討해 보았다. 끝으로 筆者는 統獨後의 새로운 國民國家像을 위해 西獨의 식자층이 어떠한 노고를 하는가를 그려봤다. 再統一이라고 하면 예전의 國民國家的 狀況에 되돌아가는 것을 意味하는데 저들이 單純히 옛 狀態에로 復歸하는것을 거부하는 理由를 저들의 近代獨逸 100년 역정의 反省에서 찾아보았다. 理性的인 議會鬪爭을 통해서 國難을 打開하려 하지 않았던 예전의 政治感覺, 政治的 思惟, 政治的 行動에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으며, 유럽에서 고립된 예전의 獨逸에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것이 바로 저들이 지금 再統一이란 말을 쓰지 않는 理由다.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밖으로는 유럽이 그의 繁榮을 위해 <平和的인 獨逸>을 必要로 하고, 안으로는 平和와 法治 그리고 自由가 具現될 수 있는 獨逸이 되었을 때 統獨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結局 統獨以後의 새로운 國民國家像은 平和와 法治와 自由가 누려지는 <平和的인 獨逸>인 것이다.



## 2. 西獨의 統獨對備美態

가. 유럽平和에 연결지은 統獨의 長期達成論

아데나워의 宰相民主主義가 낳은 「라인의 기적」이 없었다면  
오늘의 西獨은 결코 經濟大國이 될수 없고, 또 플렉시블한 平和政策  
을 구사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아首相이 對西方 一辺倒 외교로써 西獨의 國基를 다져가며 「힘의  
政策」을 통해 對共平和를 기도했던 獨逸政策 ( Deutschlandpoli-  
tik )은 냉전시대의 時潮에 맞는 合理的인 政治였다.

14年의 在任期間중 아首相은 힘의 對決에서 얻는 勢力均衡으로  
對共戰略에 임하면서도 分斷獨逸의 再結合에는 長期的으로 내다 본  
統一對備政策을 구사했다.

즉 그는 힘의 優세를 통해서 獨逸의 再統一 ( Wiedervereinigung )  
을 시도하되 이를 平和的인 方法으로 長期 對備했었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서서 東西政治가 緊張緩和 趨勢에 놓이자  
西獨에서는 1966년에 基民 - 社民의 大聯政이 시작되면서 부터 再統  
一이라는 말이 점차 그 자취를 감추었다. 分斷民族의 再統一 試圖  
에서 國民國家的인 「再統一」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先平和 後統一>  
이라는 새로운 統一戰略이 나온 것은 全적으로 1960年代 國際政治의  
緊張緩和 趨勢에 동조한 새로운 理想이라고 할수 있다.

世紀의 哲人 K.야스퍼스 ( Jaspers )가 1960年 <獨逸政治의 課業  
인 自由와 再統一> (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

ben der deutscher Politik )<sup>1)</sup> 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直後 統獨問題에 관한 인터뷰를 가진적이 있다. 獨逸民族이 갖는 未來의 國家觀 또는 國民國家的 再統一의 展望을 그는 아래와 같이 보았다. 「…… 일단 일어난 역사사실을 否認하려는 態度는 非合理的이다. 19世紀에 意義있었던 일이 반드시 오늘에 있어서도 絶對的일 수는 없다. 獨逸의 再統一이란 消滅해 간 「비스마르크帝國」을 再現시키려는 꿈이지만 히틀러의 罪과로 因해 이젠 存在하지 않는 國民國家 (Nationalstaat) 를 다시 要求하는 것은 政治的으로, 哲學的으로 不當하다. 내 보기엔 結局 獨逸의 再統一이 重要한 것이 아니라 내 同胞가 얼마나 자유로우냐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sup>2)</sup> 야스퍼스의 이같은 統獨觀은 그 당시 現實政治의 妥結策을 外面한 추상적인 提言이라 해서 많은 非難을 샀다. 그러나 1964年 E. 바르 (Bahr, 그 당시는 베를린市長인 W. 브란트氏의 公보관이었음) 氏의 접근론 (Annäherungstheorie)<sup>3)</sup> 이 나오고, 또 1968年 全獨省 장관인 H. 베너 (Wehner, 지금은 社民黨의 副黨首이며 院內總務임) 氏가 야스퍼스教授의 統獨觀을 동조했었다.

註 1) K. Jaspers,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 München 1960.

2) 拙稿, 東西獨關係의 新展開, 新東亞 73年1月号, p.189.

3) E. Bahrs Vortrag über Annäherungstheorie an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bei München.

即, 1960 年代初의 야스퍼스教授 主張을 非難하던 獨逸의 國民輿  
論이 1960 年代 후반에 와서는 그의 統獨觀을 支持하는 方向으로  
기울었다고 하는것은 獨逸의 輿論形成層이 平和政策的인 統獨政策을  
얼마나 熱願했는가를 알수 있다.

1963 年 E. 바르氏 (지금은 經濟協力省 長官임)가 接近論을 펴  
낸後 西獨의 東方接觸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大聯政時에는 루마니아  
와 國交를 樹立했으며 (1967), 1969 年 9 月以後 社民 - 自民의  
聯政은 東獨을 비롯한 東歐共產黨과의 和解試圖에 박차를 加했다.

結局 브란트政府가 東方友好에도 積極성을 띤 것은 大聯政期  
(1966 - 69)의 國民輿論이 對東方和解를 支持하기 시작한 때분인  
데 그때 統獨政策의 方向轉換을 提示한 사람이 H. 베너長官이다.

"統一號를 타고 그 終着駅까지 가려는 승객들이 列車을 기다리다  
지쳐서 駅員인 나에게 列車의 연착여부를 묻는다면 나는 말하리라.

列車의 第着時間表가 變更되어 기차는 오지 않습니다. 실령 그  
기차가 連착되어 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두서너 정거장만 더 가면  
列車線路가 뜯겨져서 더 못갑니다. 그러나 꼭 가시고 싶은 분에게  
方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멀고 힘들지만 걸어가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 終着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4) 라고 한 말은 「再  
統一」을 平和的인 現實政治라는 바탕에서 試圖하되 <先平和 後統一>

---

註 4) H. Wehners Interview, in: Deutschland Archiv, S.483f.,  
H.5 1969.

이라는 政策路線으로 轉換시킬 것을 예시하고 있다.

「先平和 後統一」이라는 統獨政策 ( Deutschlandpolitik )은 <先民族統一 後國家統一>이라는 政策을 뜻하는 高次元的인 것이기도 하다. 즉 東獨政權을 承認하고 그와 基本條約을 締結하여 東·西獨逸人이 兩地域을 自由로히 來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第1段階이며, 유럽의 平和秩序가 樹立되어 獨逸의 이웃들이 獨逸의 再結合을 질시하지 않을때 國家的 統一을 戒하는 것이 第2段階이다. 즉 基本條約 締結에 따른 施行細則 規定하므로써 東·西獨逸人이 自由로히 來往하고 또 西獨人이 東獨에 재량껏 투자하여 부유한 民族生活을 戒할 수 있게 되면 이 段階를 間接的인 民族의 統一 段階」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平和·安保秩序 ( KSZE)가 樹立되어 東·西獨의 再結合이 獨逸의 이웃들로 부터 質시되지 않고 오히려 권장받을때 東·西獨逸人은 옛 形態의 國家統一을 完遂하여 國民國家的 再統一」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獨逸의 專門家들은 全 유럽의 平和秩序가 確立되기까지 두 世代를 계산하고 있지만 힘의 對決에서 勢力均衡이 維持되는 國際政治의 向背를 아무도 精確하게 豫測할 수 없으니 만치 同政策은 變상고 정으로 民族分斷을 永久化했다는 非難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平和的이고 未來指向的인 統獨政策으로써 <先平和 後統一>의 原則을 捉하고 民族分斷을 장기적으로 초극하려는 試圖는 賢明한 現實政治라고 보아야 한다.

## 나. 對東獨 政治協商의 進陟

基本條約 締結後의 政治協商은 어떻게 하면 쌍방이 同條約內容을 誠實히 遵守·履行해 나가며 또 同條約을 바탕으로 諸交流(內獨貿易, 社會, 文化 및 體育交流 等等)를 위해 施行細則을 마련해 나가느냐 하는 對話 또는 協商이었지 결코 兩獨의 再統一같은 것을 운위할 것이 아니다. 위의 서론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西獨의 政界나 國民輿論속에서 民族의 再統一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은 이미 1966-69年의 大槪政때부터 이다. 결국 東·西獨간의 政治協商이란 再統一 問題라는 原色的인 테마가 아니고 共存을 위해 交流增進을 꾀하는 勞苦라는 점이 우리 韓國의 立場과 다른 점이다.

東·西獨間에 基本條約이 發効되고 난후 1973年 6月 20日을 기해 東·西獨은 基本條約 遵守를 위한 後続措置 및 諸 追加協定 締結을 서둘렀다. 예컨대 西獨의 關防성차관 G.가우(Gau)씨와 東獨의 외무성차관 니어(Nier)씨와의 회동, 通信協定, 保健協定, 法律的인 問題의 諸規制, 非商業的인 分野의 交流를 包含한 諸去來의 弁濟方法, 公害對策, 科學, 技術協力, 文芸進興對策 등, 諸協定締結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經濟問題 協議를 위한 會合, 境界地域 通行의 원활을 期하기 위한 쌍방의 專門家 會合, 境界線 協議委員들의 會合등이 있었다. 위의 諸協商試圖中에서 가장 重要했던 것은 쌍방의 차관급 人士가 常駐代表部의 新設을 위해 協商을 거듭했던 點이다. 그리하여 同協商의 結果 1974年

5月에는 쌍방間에 아그레망이 오가므로써 基本條約의 第8條를 誠實하게 이행하여 代表部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同代表部の 性格을 보면 兩獨의 代表部交換이 다른 第3國과 締結한 國交樹立과는 좀 다른 것이지만 事實상 同代表部들은 國際法의 諸般 慣例를 遵守하는 在外公館이나 다름없다. 同代表部の 合意文書 第4項에서 이들 두 代表部가 外交官의 特權免除등을 規制해둔 1961年 4月 18日字의 「비엔나 協定」을 受諾, 遵守하겠음을 明示한 것으로 보아도 이들은 分明히 在外公館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代表部가 第3國의 公館과 다른 점은 하나의 同一民族이 장차 民族分斷을 초극하기 위해 分斷에서 發生된 諸問題 解決을 위해 <內獨關係의 一環>에서 서로 代表部를 設置했다는 점이 第3國의 公館과 다른 점이다.

1974年 6月 20日을 기해 兩獨의 代表部가 始務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第1次的으로 妥結을 본것은 保健協定, 쌍무변제방법에 관한 協定 및 體育交流協定の 締結問題였다. 쌍무변제방법의 協定과 體育交流協定은 後面의 經濟項과 體育交流項에서 上述하기로 하고 本項에서는 保健協定에 關하여만 論及하기로 한다.

1976年 1月 1日부로 發効한 保健協定은 東·西獨逸人 旅行者 및 訪問者의 病苦時 이를 無料治療하는 것과 應急患者의 治療協助, 危急한 질병환자 및 사망자의 非常申告, 特別診療 및 요양, 醫藥品의 상호교환, 전염병 豫防에 對한 상호협력, 마약사범 단속의 協助 등을 明文化하므로써 獨逸人(東·西獨逸人)의 保健에 큰 기여가 되

었다. 5)

4大國協定에 따른 通信協定 및 基本條約이 締結됨으로써 東·西獨의 旅行者 및 訪問者의 便宜은 크게 도모되었다. 1975年의 旅行者 統計를 보면 西獨人으로써 東獨을 旅行 또는 訪問한 者가 무려 7百7拾萬名이다. 이는 1971年에 비해 5百萬이라는 數가 늘었음을 立証한다. 6)

그외에도 人的交流의 원활을 위해서 특히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해 西獨政府는 계속 끈질기게 많은 것을 提議했는데 東獨政府가 1976年9月9日 이를 受諾함으로써 離散家族의 再會問題는 큰 成果를 올렸다. 1975年度의 集計에 의하면 5,500名의 離散家族이 東獨으로부터 西獨의 친척을 訪問해 왔었다. 7)

그리고 또 東·西獨은 基本條約의 第7條를 履行하기 위해 3年餘에 걸친 오랜 協商끝에 通信協定 및 그에 따른 行政協定の 締結을 이룩했다.

基本條約을 바탕으로 諸分野의 交流增進을 위한 위와같은 一連의 施行細則規定에 이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아지는 것은 東·西獨의

---

註 5) Bundesminister f. innerdeutsche Beziehungen(Hr.),  
Auskünfte A-Z, S.23., Bonn/Juli 1977.

6) Bundesministerium f. innerdeutsche Beziehungen (Hr.),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1969 - 1976, S.16., Bonn/April 1977.

7)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16.

公益을 위한 共同事業協力を 規定한 点이다. 예컨대 1974年 10  
月에 協商하기 시작한 境界線地域 헬름슈테트 ( Helmstedt ) 와  
하르프케 ( Harbke ) 等地에 매장되어 있는 褐炭採鉞問題의 妥結을  
보았다. 1976年 5月 西獨側의 內獨貿易信託所 ( Treuhandstelle  
für den Interzonenhandel ) 와 東獨의 商易省 ( Ministerium  
für Aussenhandel der DDR ) 이 內獨交易의 增進을 베를린協定에  
바탕을 두고 合議하므로써 1976年 6月부터 同地域 褐炭의 共同  
採鉞이 시작되었었다. 8)

그리고 또 境界線地域인 브스트로브 ( Wustrow ) 와 잘쓰베델 ( Sa-  
lzwedel ) 等地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採取에 대해서도 1974  
年 10月이래 시작된 協商이 西獨의 經濟省과 東獨의 地質省간에  
成立되어 1976年 9月에는 마침내 共同採取가 햇빛을 보기  
도 했다. 9)

그리고 또 1975년에는 民間企業체인 F. 쿠루프 ( Krupp ) 社와  
홉스트 ( Hoechst ) 株式會社가 그들 生産品의 商去來를 위해 東獨  
政府와 直接 經濟·技術協力を 協議하기도 했다. 10)

東·西獨은 위와같이 相互協力を 위해 多角的인 協商을 갖고서  
부분적으로는 큰 成果를 거두기도 했지만 몇몇 分野에 있어서는  
協商의 進展이 아주 적은 것도 많았다. 예컨대 法律交流, 文化的

註 8) Auskünfte, ebenda., S.86.

9) Auskünfte, ebenda., S.87.

10)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16.



協力(科學과 技術을 包含한), 公害對策, 非商業的 分野 交流의 并濟方法 등에 관한 協商이 바로 그것이다.

對東獨協商 및 關係改善 試圖에 있어서 難題가 야기되는 것은 비단 위와같은 경우만은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點의 하나라면 協商 또는 正常化를 試圖해 나가는 도중 東獨側이 돌연히 協商을 거부하거나 또는 特定 西獨人의 東獨入國을 거절하는 態度였다. 그 適中한 例가 1976年 라이프찌히 박람회에 參加하려 했던 西獨放送局員 3名의 入國拒絕같은 것이다.<sup>11)</sup> 東獨側의 이와같은 態度는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에선 世界 도처에서 볼수 있는 通例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對東獨協商이 위와같이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西獨은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채 끈질기게 對話를 시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兩獨關係가 유럽政局의 緊張緩和 趨勢에 중대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緊張緩和가 獨逸人에게 그토록 重要하기 때문에 西獨은 1975年 8月 1日에 작성된 헬싱키의 最終文書를 尊重하고 있다. 同文書에 明文化된 全유럽 緊張緩和의 基本原理를 相互尊重·遵守하므로써 東·西獨間에 締結한 諸協約이 誠實히 履行될 것이며, 이것이 지켜져야만 民族分斷을 長期的으로 초극할 수 있는 人道的인 諸問題가 먼저 妥結되기 때문이다.

1976年 1月 29日 西獨의 H. 슈미트首相이 연방의회에서 밝힌

---

註 11)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17.

아래와 같은 對東獨政策의 基本方向과 目標을 음미해 보면 西獨人 이 지금 全유럽의 緊張緩和속에서 그들의 民族分断을 長期的으로 妥結 試圖하는 자세가 잘 들어난다. 첫째, 우리의 對東獨政策은 우리 國家基本法의 規範과 價值觀을 바탕으로 樹立되어 있다.

둘째, 그러기때문에 우리는 國家基本法에 대해 是非를 論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를 무작정 감싸지도 않을 것이다. 셋째, 우리는 東·西獨으로 나누어서 사는 우리 同胞들의 安寧을 위해서 締結된 諸條約을 最善을 다해 遵守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同盟國들과 條約에 違背되지 않는 協力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이다. 12)

슈미트首相의 이같은 提言은 對共協商이 참말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協商이 成就된 마당에선 이것이 分断民族에게 크게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계속 끈질기게 對共協商을 展開하겠다는 굳은 意志를 보여준다.

다. 經濟協力の 實態와 諸規定事項

먼저 內獨貿易狀況을 보자. 東·西獨이 分断된 이후 同一民族의 同質性을 維持하는 同時에 異質化를 防止한다는 面에서 第一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이 內獨貿易(一名 역간교역)이라는 分野다.

終戰直後 占領軍 治下의 東·西獨은 無法狀態에서 약간의 物資交

註 12)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17.

流가 있었으나 同交流가 合法化된 것은 1947 年の 日韓協定이었다.

그후 1949 年 占領軍 政府令 第 53 号와 1950 年 6 月 15 日字의 美·英·仏 3 個軍 司令官의 統治領 第 500 号에 의해 内獨交易協定은 補完되었고, 이것이 또 1958 年 5 月 22 日字의 改正令을 통해서 더욱 補完되므로써 内獨貿易은 더 활발해졌다. 物資交流 및 相互間의 弁濟方法을 規制하는 데에는 위에 서술한 4 개의 法令이 母體가 되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内獨貿易의 發展은 東·西獨政府 樹立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經濟的인 또는 政治的인 理由때문에 그 發展過程이 결코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基本條約締結 以前의 交流狀況은 이미 많이 다루어졌으니 省略하고 (拙著, 「東·西獨의 接觸過程研究 - 아테나워政權에서 基本條約締結까지를 中心으로」를 參照願望) 基本條約締結以後의 交流 增進 및 現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1970 年 5 月 8 日 内獨貿易을 가일층 권장한다는 西獨 財務長官令에 依拠 交易의 불륨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産業分野의 機材를 東獨으로 供給하는데는 6% 내지 3%의 売上稅를 引上했고 農産物 供給에는 免稅措置를 해두었다. 13) 그러나 東獨에서 들어오는 物資에 대해서는 稅金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西獨의 實需要者들은 그에 해당하는 附加價值稅를 더 많이 負擔해야 했다.

東·西獨의 交易을 增進시켜야 한다는 基本條約 第 7 條 附則을

---

註 13)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21.

誠實히 履行하기 위해서 東·西獨은 長期的인 交易協定을 締結하여 쌍방의 經濟發展을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3年 9月 18日 西베를린駐在 역간교역을 信託所 (Treuhandstelle)와 東獨의 商易省間에 協定이 締結되어 金屬, 鐵製, 鋼鉄 및 機械類등이 供給되었고 또 1975年 7月 9日字의 協議에 의해서 「베를린協定」이 補完되었는바 西獨과 西베를린 市中銀行을 통한 財政借款은 11억마르크까지 同條約 테두리안에서 長期支援한다는 것이었다. 14)

餘他の 經濟分野 合意狀況을 보면 境界線地域인 헬름슈테트와 하르프케 (Helmstedt, Harbke) 等地의 褐炭採掘과 브스트로브와 잘쓰베델 (Wustrow, Salzwedel) 地域의 가스採取가 可能해질 것이 큰 成果라고 할 수 있다.

헬름슈테트와 하르프케의 褐炭매장지역은 1952年 東獨에 의해서 철조당이 쳐짐으로써 分界되었다. 專門家들이 測定한 바에 의하면 同地域의 褐炭매장량은 西獨側이 500萬톤이고 東獨側의 것이 1,000萬톤이었는데 이를 採掘하기 위해 分界線을 徹廢하는 것이 問題였다. 그래서 東·西獨의 當該官署 (TSI와 MAH)는 數年을 두고 協商을 試圖했으나 별 無成果였다. 그러나 1974年 6月初 境界委員會 (Grenzkommission)가 동 褐炭매장지역의 分界線 徹廢를 決議함으로써 쌍방의 政府次元 協商이 成立되었다. 그리하여 1975年 6月 26日 東·西獨의 專門家들이 同境界線 徹廢를 再次 決議하므로써 1976年 5月 19日 마침내 協商이 成立되었다.

---

註14)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21

그리하여 西獨側의 브라운슈바이크 채탄회사와 東獨의 採鉞交易 企業  
間에 合意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15)

그리고 또 경제위는 1974年 6月初의 會合에서 브스트로브와  
잘쓰베렐地域의 가스採取를 자기 그들의 政府에 提議할 것을 決議했  
었다. 그에따라 同年 12月9日 東獨이 政府次元의 協商을 提議해  
오므로써 同地域의 가스採取 協商은 急進展되었다.

同地域의 가스매장량은 西獨보다 東獨의 것이 10배가 많았기  
때문에 東獨은 이미 1968年부터 이 가스를 一方的으로 採取하여  
西獨地域의 매장량까지 一部 採取해 갔다. 그러나 西獨은 1976年  
늦가을에야 同 가스採取作業을 着手했는데 이것은 1975年 1月23  
日 西獨의 經濟省과 東獨의 地質省間에 合意한 것을 바탕으로 着  
手한 것이었다.

그후 1976年 6月30日 쌍방의 專門家 委員會가 모두 다섯차례  
의 會合을 가지므로써 同가스 採取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  
다.

內獨貿易이 初期부터 어떻게 發展해 왔는가는 아래의 圖表 16) 가  
자상히 立証 하지만 역간교역의 일환으로 非商業用 物資交流도 적지  
않았다.

1971年以來 西獨政府는 東獨과 非商業分野의 物資交流를 활발히

註 15)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22

16)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22

内独貿易上の 物資交流 1952 - 1976

( 100 萬單位 VE=DM)

年 度	東独으로부터의 購入	東独으로의 供給	売 買 高
1952	119.0	153.5	272.5
1953	294.7	261.4	556.1
1954	434.4	450.4	884.8
1955	583.5	576.4	1,159.9
1956	656.7	671.5	1,328.2
1957	844.7	838.3	1,683.0
1958	879.8	872.8	1,752.6
1959	935.4	1,062.6	1,998.0
1960	1,007.3	1,030.3	2,037.6
1961	917.3	911.0	1,828.3
1962	898.9	901.5	1,800.4
1963	1,028.7	907.2	1,935.9
1964	1,111.9	1,192.8	2,304.7
1965	1,249.0	1,224.9	2,473.9
1966	1,323.7	1,680.8	3,004.5
1967	1,254.8	1,490.6	2,745.4
1968	1,450.5	1,458.5	2,909.0
1969	1,656.1	2,077.8	3,734.0
1970	2,064.2	2,483.9	4,548.1
1971	2,583.5	2,652.3	5,235.8
1972	2,394.8	2,959.8	5,354.6
1973	2,688.1	2,958.2	5,626.3
1974	3,256.2	3,662.0	6,918.2
1975	3,390.9	4,028.2	7,419.1
1976	3,938.4	4,469.9	8,408.3

※ 資料 : 西独經濟省 提共

하자는 協商을 督促했는데 이는 마침내 1971年 9月 30日字의 協議  
文書<sup>17)</sup>, 1972年 5月 26日字의 交通條約에 관한 公翰交換<sup>18)</sup>,  
1972年 12月 21日字의 人道的인 關係改善을 위한 公翰交換<sup>19)</sup> 및  
1976年 9月 9日字의 聲明<sup>20)</sup> 등을 通해서 非商業用 物資交流를 원  
활하게 進展시켜 놓았다.<sup>21)</sup>

예컨대 東獨에로의 旅行者에 대해서 物品攜帶의 限度額을 종전의  
100 마르크에서 500 마르크로 引上했으며, 또 예전에 輸入 및 携  
帶 금지품목이었던 필름, 사진기, 레코드판 등이 解除되었다. 그리  
고 탁송 및 攜帶할 수 있는 物品의 量은 20 키로로 限定되었다.

또 1976年 여름부터 中古品 옷감 (TEXTILE) 이나 구두를 탁송  
하는데는 別途의 手續없이 発送할 수 있도록 되었었다 (옷감은 60  
마르크 相當의 物品으로 限定함).<sup>22)</sup> 그리고 또 1974年 2月부  
터는 西獨人이 東獨을 訪問했을때나 東獨人이 西獨으로 親族訪問을  
왔을때 그들에게 西獨의 마르크貨 (DM) 을 줄 수도 있게 되었다.<sup>23)</sup>

---

註 17)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117 ff.

18)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137 ff.

19)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159 ff.

20)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252

21)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23

22) Auskünfte, ebenda., S.22

23) Auskünfte., ebenda., S.22

또 非商業分野交流에서 特異한 業績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해서 東獨住民의 西獨에로의 移住가 許容된 點이다. 勿論 東獨人으로서 西獨으로 移住해 오는 자는 高齡者나 停年退職者로 限定되어 있지만 이들이 이사해 올때에 그들의 資産을 整理해서 持參할 수 있도록 移住 및 相統財産法이 制定되었었다. 基本條約이 發効되기까지는 큰 成果가 없었지만 同 移住 및 相統資産의 搬出은 1970年 2月 12日字의 東獨關稅法에 따라 暫定的으로 施行했었다. 그러나 同 移住資産 搬出問題는 위와 같이 法은 制定되어 있었는데도 東獨側의 諸官署에서 재가 과정이 복잡하여 事實上 基本條約締結以前의 移住財産 搬出은 有名無實했다. 그러나 1973年 6月 21日, 1974年 2月 7日 및 1976年 9月 21日등의 關稅法 施行改正令을 통해서 同問題가 중극적으로 타결되었었다. 그러나 移住財産 搬出에 있어서는 지금도 藝術品, 골동품 및 貴金屬의 搬出을 東獨側이 거부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狀況이다.



라. 社会文化 및 体育交流의 協力実況

1973年 末, 基本条約 第7条의 附則 2項에 規制한 文化領域에 있어서의 協力 및 發展에 관한 政府次元의 協定締結 協商이 始作되었다. 그리하여 1974年 1月, 1975年 3月, 1975年 6月, 1975年 10月等 前後 5次에 걸쳐 끈질기게 協商을 벌였으나 公式 協定締結의 結論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同協商이 進行되는 동안에 東·西獨의 文化交流量은 基本条約締結 以前보다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東獨의 芸術단이 여러차례 西獨에 왔었고 또 東베를린에서 開催되는 박물관 전시회에 西獨側이 招請되기도 했다. 그리고 1977年 2月에는 西獨側이 東베를린에 가서 「科学과 技術에 있어서의 写真에 대하여」 展示회를 가졌었다.<sup>24)</sup> 同展示회를 15萬名의 東獨人이 參觀했다는 것은 西獨의 科学技術에 대해 東獨人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를 立証해 주는 좋은 예이다.

1973年 11月부터 1976年 11月까지 東獨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등 音樂芸術團이 西獨을 방문한 수는 10회이며<sup>25)</sup> 이들은 西獨의 各 都市를 순회공연했다.

그리고 文芸面을 보면 每年 푸랑크프르트에서 열리는 國際圖書展示회에 東獨에서도 約 40個의 出版社가 參加했고, 또 東獨의 라이프찌히에서 열리는 圖書展示회에는 西獨의 많은 出版社가 매번 參與했었다. 1976年의 統計에 의하면 東·西獨의 年間 圖書交流

---

註 24) Auskünfte, ebenda., S. 44

25)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48

액면이 3千6百萬마르크였다. 26)

다른한편 文化交流의 일환에서 東·西獨이 応用美術品을 交換展示한 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3年 봄 東獨은 西獨의 Köln에 와서 Ernst-Nolde 展示회를 가졌고 또 1974年 여름에는 Dusseldorf에 와서 Arnold-Böcklin 展示회를 가졌었다. 그리고 1974年 가을에는 Hamburg에 와서 Caspar-David-Friedrich 展示회를 가졌으며 1975年 8月에는 Köln에 와서 Ernst-Barlach 展示회를 갖기도 했다. 그리고 1975年 5月에는 Göttingen에 와서 Grotefend Gedächtnis 展示회가 「古代 東方世界」를 展示했는가 하면 1976年 봄에는 Köln에 와서 Lovis-Corinth 展示회를 가졌었다. 그리고 1976年 여름에는 Stuttgart에 와서 Anselm Feuerbach 展示회를 가졌는가 하면 1976年 末 東베를린의 Bode 박물관에서 열린 인상주의파 展示회에는 西獨側에서 대출 받은 作品들이 많이 展示되었다. 27)

다른 한편 東·西獨은 지금 教育制度 및 科学·技術分野의 協力を 위해서 많은 比較研究는 勿論이요 끈질긴 協商을 벌려왔었다. 1973年 11月부터 1976年 末까지 도합 16차례의 協商을 했는데도 分断期間이 너무 길고 또 異質的인 發展이 깊어진 때문인지 同分野의 發展은 눈에 띄지 않는다. 勿論 自然科学分野의 學術雜誌 및 研究論叢等の 發刊에 있어서 그 出版費 및 出版業務를 部分的

註 26) Auskünfte, ebenda., S.45

27)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1

으로는 西獨側이 担当하고 原稿料나 印刷費等은 大部分 內獨 貿易의 弁濟方法 一選에서 清算시키는 그러한 協力成果는 있었다. 이러한 協力を 통해서 自然科學 및 工學分野의 學術誌와 辭典類들이 出刊된 것은 同一民族 異質化 防止策의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同協商이 잘 進展되어 미구에 學術·文化交流의 特別協定이 締結될 境遇 하나의 獨逸民族이었다는 民族的 긍지와 傳統文化를 승화시켜야 한다는 감정이 東·西獨의 靑少年들에게 持續될 때 獨逸民族의 同質化는 長期的으로 可能해지지 않나 싶다.

그리고 1950年무렵까지 東獨에서 수학한자가 西獨의 職場生活에서 그의 學校卒業 및 成績証明이 必要하여 東獨의 當該官署에 送達을 依賴했을 때 大部分의 境遇 同送達이 不能해 졌다고 한다. 그 理由는 分斷狀況下에서 東獨側의 文教行政에 改竊·變化等이 있어 當該官署에 同送達要請이 전해지질 않을 때도 있으나 그 보다는 오히려 政治的인 理由에서 同要求를 묵살하는 境遇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特別 文化協定이 締結되는 날엔 위와같은 公文書 要請問題는 圓滑하게 處理되겠지만 本質的으로 重要한것은 戰後 教育制度의 差異點에 있다. 理念과 體制가 다른 教育制度下에서 수학한 同一系列의 學生이 갖는 學力을 雙方이 모두 同等하게 認定할 수 있느냐는 問題다. 이 問題의 根本的인 解決策은 教科過程의 評형 및 改竊에 있느니만치 政治的인 타협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룩될 수 없는 重大事라고 본다.

社會分野의 交流로서는 協同組合 및 靑少年들의 接觸·會合등을 들 수 있다.

먼저 兩獨 노조 간부들의 接觸狀況을 보면 25年間이나 中斷되어 있던 노조 간부들의 再會가 基本條約 締結後 처음으로 있었다. 西獨側의 「獨逸勞組」代表와 東獨側의 「獨逸自由勞組」代表는 1972年 10月 「東베를린」에서 會同했고 1973年 3月에는 西獨의 「뫼셀도르프」에서 만나 勞動者의 權益向上을 위한 그들의 關心事를 論議했었다.<sup>28)</sup> 이들의 接觸이 繼續 연결이 되어 西獨側의 勞組同盟과 東獨側의 自由勞組同盟, 東·西獨의 工業勞組 및 諸協同組合이 關係를 갖고 情報交換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東·西獨의 諸勞組들이 繼續 關係改善을 시도한바 H.O. 베티어 (Vetter) 를 團長으로 하는 西獨勞組 代表團은 1976年 11月 東獨의 自由勞組 代表 H. 티슈 (Tisch)의 招請을 받아 東獨에서 會同했었다. 그 후 1977년에 접어들어 東獨의 티슈는 西獨의 베티어의 招請을 받아 西獨에 들어와서 會同했는데 이들의 會談이 主軸하여 東·西獨間의 個個의 勞組들이 接觸을 갖게 되었다. Bau-Steine-Erden 勞組, Bergbau und Energie 勞組 및 織物·医療勞組等を 除外하고는 西獨의 모든 勞組들이 東獨의 自由勞組와 接觸을 가졌었다.<sup>29)</sup> 그리하여 그 後로는 雙方勞組 代表團의 相互訪問이 繼續 있었는바 그 代表的인 것을 보면. 1973年 11月 化學, 製紙, 도자기 勞組 등의 代表團이 東獨의 Halle를 訪問했고, 同年 11月 중순에는 印刷 및 製紙勞組 그리고 製材 및 모조지 勞組 代表團이

註 28)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3

29)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3

東獨을 訪問한 것 등이다. 30) 다른 한편 東獨側에서는 西獨의 通信 勞組 招請에 의해 運送 및 通信勞組 代表團이 1976年 10월에 西獨을 訪問한 것을 들 수 있다. 31)

東·西獨의 諸勞組가 모두 그 專門領域에서 勞動者의 權益을 擁護하고 向上시키기 위해 民間團體 接觸의 一環에서 오고 간다는 것이 經濟 및 社會秩序가 다른 政治的 狀況下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南北이 極限的으로 대립되어 있는 우리에게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 靑少年의 交流狀況을 보면 1973年까지는 西獨의 學生 및 靑少年들만 東獨을 旅行 訪問하는 일방적인 것이었으나 1973年 8月 東베를린에서 「第10次 世界靑年·學生大會」가 있은 後부터 몇몇의 東獨側 靑年團體도 西獨을 訪問하게 되었다. 卽 西獨의 靑年學生團體가 第10次 世界靑年·學生大會에 參加하고서 그 기회에 東獨의 獨逸自由 靑年 中央委 및 自由勞組와 接觸을 벌렸던 結果인데 靑少年 交流의 成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다. 32)

言論人의 交流를 보면 이미 1950年代부터 東獨의 기자들은 第3國의 기자들처럼 西獨領域에서 靑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西獨의 言論人들은 1972年까지 東獨領域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

註 30)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3

31)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3

32)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3

나 1972年 基本条約이 締結되기 直前부터 言論人 交流에 對한 協商이 始行되어 1973年 2月에 同協商이 急進展되고난 후 言論人 交流問題가 制度化 되었다. 그리하여 1976年 12月現在 16名의 西獨기자들이 東베를린에서 活動하게 되었다.<sup>33)</sup> 그러나 言論人의 취재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西獨기자들의 東獨에 있어서의 活動은 아주 制限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勿論 1973年 2月의 協定締結時 東獨의 諸國家機關이나 指導的인 人物들을 모함 또는 非難하지 않을 것을 施行令을 통해 의무화했던 것은 事實이지만, 同 施行令을 저촉시켜 西獨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많이 制限하고 있다. 예컨대 1975年 12月 西獨의 슈피겔誌 기자 J.R. 메트케 (Mettke)가 同 施行令을 위배했다하여 추방당했는가 하면 1976年 12月에는 西獨의 ARD 東獨駐在 記者 L. 로에베 (Loewe)도 추방당했었다. 東獨이 이들의 추방이유를 東獨의 法秩序를 惡意로 위배했고 東獨의 內政干涉을 했다고 했었다.<sup>34)</sup>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 取材記者들의 편의를 圖謀하기 위해 1976年 6月부터는 이들이 家族을 동반하게 해주었고 또 이들 記者의 兒童들이 西베를린으로 通學할시 그들에게 「兒童 通行비자」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지금 "본"에는 6名의 東獨記者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ADN (東獨通信)과 日刊誌 「Neues Deutschland」와 「Tribune」,

註 33)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5

34)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5

그리고 国營放送 및 TV 등을 代表한다. 西独의 公報省은 이들 東独記者들을 다른 第3國의 本駐在 記者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고 있다. 35)

다른 한편 体育交流를 위한 諸規定을 보면 11年 동안 中斷되었던 体育交流가 1970年에 들어와서 東独의 Halle 및 西独의 München에서 처음으로 그 交流를 協議하게 되었다. 同會合에서 西独의 스포츠聯盟(DSB)과 東独의 体育 및 스포츠聯盟(DTSB)은 兩独間의 体育交流를 위해 具體적인 것을 協議했었다. 即 두 聯盟傘下의 諸協會가 接觸을 強化할 것과 국제시합을 위한 연습경기, 國際体育人 會議에 代表派遣, 体育研究에 관한 知識의 交換, 경기장 建設 및 운동기구 製造에 있어서의 經驗交換, 体育勸獎의 規範에 대한 강습 및 靑少年 体育大会의 共同開催問題등이 건의되었다. 이러한 交流增進의 試圖에 활력을 불어넣은것이 基本條約締結에 따른 當該分野의 勸獎이었다. 即 基本條約 附則 2項의 8條는 兩独의 体育交流를 勸獎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1973年 3月 東·西独의 스포츠聯盟(DSB와 DTSB)은 會合을 갖고 4個委員會를 가진 兩体育機構 代表가 前後 3次에 걸쳐 協議했었다. 協議內容의 가장 重要한 것은 西베를린의 体育 전반을 끌어들이는 單一팀의 構成問題였는데 이는 끝내 타결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74年 3月 第4次 會合에선 1974年度의 경기종목 內容이 건의되었다. 그리하여 1974年 5月 西独스포츠聯盟의 H. 그멜린(Gmelin)과

---

註 35)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6

東獨 體育 및 스포츠聯盟의 M.에발트 (Ewald) 代表가 1974 년도의 경기개최 계획안에 署名했었다. 雙方이 協議한 同 스포츠 交流 文書를 보면 1974 年度の 경기개최안 以外에 첫째, 每年 합 동경기의 施行案에 合意했고, 둘째, 國際올림픽 委員會와 國際스포츠 기구의 결의에 따라 그들의 體育交流를 增大 시켜간다는 것이며, 셋째, 共同의 경기개최에 따른 經費는 共同分担한다는 것이었다. 36)

1974 年 5 月 8 日의 合意文書에 의거 그 後는 每年 다음 해의 합동경기 개최안을 協議했었다. 그리하여 1975 年과 1976 年에는 62 個의 경기개최안이 合意되었고, 이 62 個中 1976 年에 31 個 경기가 西獨의 400 名이 參加하여 東獨領域에서 열리고, 또 다른 31 個 경기는 東獨의 392 名이 參加하여 西獨領域에서 施行 되었다. 37)

西獨의 스포츠聯盟이 東獨側과 協議하여 경기交流를 가일층 增大 하려고 하는데는 두가지 理由가 있다. 그 하나는 雙方 경제선 地域의 地域對抗競技를 늘리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靑少年의 體 育交流와 아울러 아직 東獨領域에서 한번도 競技를 갖지 못했던 競技種目を 늘리자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지만 東·西獨의 스포츠聯盟은 體育 및 國民保健向上을 위한 交流增進에 各별한 關心을 갖고 있는바 이는 양 쪽의 獨逸人 서로가 「남」이 아니라고 느끼는 獨逸民族의 同質

---

註 36)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4

37)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54



性維持에 重要な 要因이라고 보아야 한다.

1975年 10月 西獨의 스포츠聯盟 代表團이 W. 바이어 (Weyer) 會長의 引率下에 東獨을 訪問한 적이 있다. 同訪問時에 西獨의 많은 體育部 記者들이 同行하여 東獨의 體育振興 成果와 體育發展의 構造等を 알아왔는데 이는 獨逸人の 體力向上을 위해 좋은 基礎的 研究라고 본다. 同訪問의 答訪으로서 1977年 3月에는 東獨의 스포츠聯盟 代表團이 西獨을 訪問했는데 體育人的 이같은 交流는 民族分斷의 長期的 克服을 위해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 마. 通信協定の 大成果

東·西獨間의 通信交流는 1945年의 종전직 후부터 베를린 장벽이 構築되는 1961年 8月까지는 變칙적으로나마 繼續實施 되었다. 그러나 장벽구축이후 한동안 兩獨間의 모든 交流가 中斷됨에 따라 通信交流도 많은 制限을 받았었다. 1967年 8月 東·西獨의 通信相이 通信交流의 關係改善을 試圖하기 까지 東獨은 東베를린과 라이프찌히 등 여러곳에 郵便物統制所를 設置하여 嚴格한 압수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通信交流는 첫째, 長時間을 要했었고, 둘째, 送金과 상용품으로 간주되는 수·소화물류는 전혀 送達이 안되었기 때문에 同交流는 상당히 制限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9年 9月 브란트 내각이 출범하면서 맨먼저 協商試圖 한것이 通信交流였다. 그리하여 同協商이 部分的으로나마 成功되어 1970年 4月에는 通信交流가 크게 增大되었는데 그 當時 西獨이 제의한 通信交流의 改善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화회선을 增設하자는 것이었고, 둘째 兩

獨間의 電話交流을 自動化하자는 것이었다. 세째는 東베를린과 西베를린의 通話網을 재개하자는 것이었고, 네째는 전신교류를 自動化하자는 것이었다. 다섯째는 放送 및 TV중계업무를 改善하자는 규범의 樹立이었고, 여섯째는 전화회선(케이블 및 연락등)을 새로히 增設하자는 것이었다.<sup>38)</sup> 그러나 이러한 제의는 東獨에 의해서 일시에 수락된 것이 아니고 1970年 4月과 1971年 9月의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1970年에 電話가 40회선이 新設되었고 텔렉스회선도 44個가 가설되었다. 그리고 1971年에는 東·西獨間에 60회선의 電話가 늘었고, 東·西베를린間에도 150회선의 電話가 가설되었다.<sup>39)</sup> 그리하여 1976年 3月 마침내 東·西獨間의 通信協定이 종국적으로 締結되기까지 兩獨間의 通信交流은 繼續 增大되었는바 아래와 같은 전화회선의 增設數가 關係改善의 실상을 단적으로 立証해 준다. 예컨대 1972年에는 東·西獨회선이 72個 늘었고, 東·西베를린회선은 51個가 增設되었다. 1974年에는 東·西獨회선이 96個가 늘었고 1975年에는 東西베를린회선이 240個 新設되었다.<sup>40)</sup>

1971年 9月의 通信協定을 보완한 1976年 3月 30日字의 通信協定을 보면 이는 1972年 12月에 締結된 基本條約의 第7條중 「東·西獨의 通信交流 發展을 위한 協力」이라는 條項을 충족시킨

註38)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26

39)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27

40)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29

協定이었다. 1972年 12月以後 同逋信協定을 위해서 24回의 協商이 있었는바 書信交流, 電信·電話交流 및 逋信交流 전반에 관한 變제방법등에 관하여 3個 行政協定이 각각 締結되기도 했다.

東·西獨間의 逋信協定이 國際逋信協定の 規범을 준수하면서도 한 가지 특이한 것은 第3國과 締結한 逋信協定과는 달리 그들간에는 요금을 내국우편요금으로 일반화했고 관세품 申告도 안하며 對外國 送達時에 使用하는 서류양식등을 쓰지않기로 규제해둔 점이다.

그리고 또 1976年의 同協定이 東·西獨 逋信交流의 圓滑을 기하고 相互協定한것중 두 가지를 예 든다면 그 하나는 郵便物 送達의 迅速을 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郵便物 來往의 차질을 막기 위해 雙方이 모두 全獨逸의 局 番号를 啓蒙시키는등 逋信行政과 그 業務를 홍보했다는 點이다. 即 前者는 종전엔 모든 郵便物이 헬름슈테트(Helmstedt)의 철도만을 利用시킴으로서 그 送達이 지연되었던 것을 이젠 東獨에 通하는 모든 철도 및 육로를 利用함으로서 送達의 迅速을 기하게 된것이다. 그리고 後者는 逋信交流의 圓滑을 기하기 위해 雙方이 모두 全獨逸의 郵便番号 및 市外電話 局番号등을 啓蒙하는등 소위 逋信行政 그 自体를 적극 홍보했다는 點이다.

同協定締結로 因해 圓滑해진 逋信交流의 現況을 보면 東獨에서 西獨으로의 郵便物量은 많이 增大된 반면 西獨에서 東獨으로의 郵便物 및 탁송소화물은 顯著히 줄어 들었다. 그 理由는 東獨人이 西獨에 서신연락하는데 政治的 干여가 除去되었다는 데에 있고; 그 반면에 西獨人의 對東獨 郵便物量이 減少된것은 自由로이 친족방문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物品을 지참할 수 있고 또 西獨의 마르크貨를 東西에서 使用할 수 있게 되므로서 많은 西獨人이 現金을 지참하여 그들의 親族에게 現地에서 많은것을 선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와같은 理由때문에 西獨에서 東獨으로의 수·소화물이 減少되었다는 데도 1975年의 集計를 보면 西獨에서 東獨에로의 수·소화물이 3,000萬個인데 반해서 東獨에서 西獨에로의 수화물량은 불과 1,000萬個였다. 41)

전신·전화 연락망을 보아도 1970年에는 불과 34회선이었던것이 (모두 수동이였음) 1976年에는 719회선으로 늘었으며 (이 중에서 441회선이 西베를린에서 東베를린 및 東獨으로의 회선임).

1971年까지는 半自動이었던 것이 1972年부터는 西베를린에서 東獨에로의 一部가 自動化되었다. 42) 그리고 1975年度의 通話數는 西獨에서 東獨에로가 1,000萬通이고 東獨에서 西獨에로가 500萬通인데 이를 通算하면 東·西獨間의 通話가 每日 4萬通이었다는 結果가 된다.

다른 한편 텔레кс 회선도 1970年初까지는 불과 46회선(그 중에서 11회선이 베를린에서 東獨間이었음)이었던 것이 1976年 現在 126회선(그 중 베를린-東獨間이 35회선임)이었다. 43)

基本條約締結以後 東·西獨交流中 가장 큰 成果를 올리고 協力이 잘 된 分野는 바로 遞信交流이다.

註 41)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28

42)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28

43) Die Entwicklung d. Beziehungen, ebenda., S. 27

### 3. 東獨의 統獨觀

#### 가. SED의 立場

東·西獨의 統獨觀이 어떻게 다르냐는 점을 알아내는 데는 그들이 終戰까지는 하나의 獨逸民族이었으니만큼 두個의 政府樹立以後 각기 그 政權을 合理化하기 위해 어떠한 民族概念 論爭을 벌였는가를 보면 쉽게 알수있다. 아首相時節의 西獨은 <一民族-國家論>에 立脚하여 單獨代表權을 내세우고 東獨을 괴뢰시했는데 반해서 1969年의 브란트政權以後에는 <一民族 二國家論>에 立脚하여 東獨의 國家的 實在은 認定하되 民族은 하나임을 主張하고 있다. 卽. 東西體制라는 政治現實때문에 하나의 獨逸民族이 分斷된것 뿐이지 2次大戰以前에는 하나의 獨逸民族이었다는 이 歷史事實과 또 앞으로도 繼續 하나의 獨逸民族이 存続된다는 이 엄연한 事實은 아무도 否認 못한다는 것이다. 卽 西獨의 民族論은 民族概念에는 歷史的인 眞實과 政治的인 意志가 融合되어 있어야 함을 強調하고 있다. 그래서 民族이란 共通의 言語와 文化, 國家와 社會秩序보다도 더 훨씬 많은것을 內包하고 있는 意義있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Nation (政治化된 民族)은 한 Volk (純粹한 民族)의 종속감정을 繼續 持統시키기 때문이다. 44)

그러나 그에 반해서 東獨은 지금 <二國家 二民族論>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은 東獨政權의 鞏固化와 國際政治에 있어서 兩獨論

註 44) 拙稿, "共產主義의 民族概念", [北韓] 73年9月号, p.153.

을 통용시키고져 이 民族論을 段階的으로 發展시키고 이용해 왔다. 1973년판 東獨의 政治學 소사전을 보면 「民族이란 生産力과 文化의 發展形態인데 이 發展形態의 歷史的 性格은 社會 諸經濟階層의 對立과 協同을 통해서 特徵지워지며 마침내 物質的으로 理念的으로 그들 文化的 關心의 필요를 그려낸다」<sup>45)</sup> 라고 되어있지만 東獨은 第1段階(1949-1960年代初)에서는 「分斷없는 하나의 獨逸民族이 存在한다」라고 主張했었다. 즉 1960年代初까지는 共產圈 民族論의 原型인 스탈린의 民族概念을 지지하면서 「國土는 分斷되었지만 民族은 分裂되지 않았다」고 主張하던 純粹民族論을 썼었다. 그러나 第2段階(1962-'69)에서는 「民族分裂論」과 「社會主義的 民族形成論」을 主張하면서 스탈린의 概念·定義를 修正 試圖했었다. 卽 1960年代라는 獨逸的 狀況에서 볼때 스탈린의 概念 定義는 한 民族의 特色을 성격화하는데 있어 그 民族의 役割 및 發展法則등을 評價하지 않은 점을 指摘했었다. 예컨대 한 民族이 勞動者層의 主導下에 社會主義的인 民族으로 轉換해 가는 可能性의 提示가 스탈린의 概念 定義에는 缺如되어 있다는 것이다.

結局 第2段階의 民族論은 社會主義的 民族形成을 고취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들 스스로가 同一民族의 종속감정을 가졌던 때라서, 다시 말하면 同族의 心理的 要因이 그 때까지만 해도 作用했기 때문에 西獨人을 完全히 <남>이라고 規定짓지는 않았던 段階다.

註 45) Kleines politisches Wörterbuch, S. 568 f., Berlin (Ost)

그러나 第3段階 (1969-現在까지)는 스탈린의 概念・定義가 修正되어 東獨의 住居民에게 社會主義的 國民意識이 점차 싹 텄다는 것을 바탕으로 「民族의 類型化」를 合理化하고 있는 段階다. 卽지들은 지금 「한 民族안에 두 國家는 있을수 없고 異質的인 社會秩序위에 存立하는 두 國家안에 두 民族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1968年 4月 改正 公布된 東獨憲法 第1條를 보면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族의 社會主義 國家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根拠로 해서 1970年 1月 W. 울브리히트는 「東獨이 社會主義的인 獨逸民族國家인데 반해서 西獨은 資本主義的인 나토국가」라는 民族形態論을 公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民族論을 바탕으로 分斷獨逸의 再統一을 운위한 東・西獨의 統一政策을 比較해 보면 西獨은 1960年初까지의 <一民族一國家論>을 69年以後 東獨의 國家的 實在을 認定하고 <一民族二國家論>으로 바꾼것 뿐이다. 그러나 東獨은 모두 세 段階에 걸쳐 民族論을 發展시키면서 社會主義的 統一獨逸을 위해 實現의 可望이 없는 별의별 提案을 數多히 내놓았었다. 60年代 후반이후 東・西獨은 再統一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지만 60年代 전반까지의 마지막 統一論爭은 西獨이 유엔監視下의 自由選舉를 위해 方法的으로 4段階 統一案을 내놓은데 반해서 東獨은 兩獨의 이질적인 社會體制는 維持하되 獨逸의 外型的인 國家統一을 이룩해 두자는 뜻에서 中立化概念을 內包한 「國家聯合案」(Konföderation)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東・西獨의 統一論爭은 60年代 후반 東西解氷

이라는 國際政治 趨勢속에서 東·西獨의 基本條約이 締結되므로써 종식되고 말았다. 지금 東·西獨은 서로 再統一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다.

結局 東獨은 基本條約 締結로써 그들의 宿願이었던 兩獨論을 國際政治에서 기어이 通用시켰으며 현 境界線을 固定化하고 社會主義的 獨逸民族의 國民國家를 繼續 發展시켜 나가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平和定着的인 現狀維持政策으로써 社會主義的 獨逸國家建設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東西 勢力均衡이 와해되어 共產主義 世界革命을 西歐에 輸出할 수 있는 狀況變化가 일면 동국가건설을 全獨逸領域(東·西獨)에 擴大시킬 것이다.

#### 나. 東獨內 反體制클럽의 主張

1977年 9月 11日 東獨에는 예전의 社會主義 統一黨員에 의해 「獨逸共產主義者 同盟」(Bund der Deutschen Kommunisten)이 結成되었다. 當局으로부터 合法的인 承認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獨逸共產主義者 同盟은 非合法的인 方法으로 그들의 活動을 展開하면서 西獨이나 서베를린의 뜻있는 同志들이 이에 가담해줄것을 호스하고 있다. 그들은 昨年 가을의 尙足當時 獨逸共產主義者 同盟의 이름으로 宣言을 내고 東獨의 國家閣僚會議에 公開狀도 내면서 SED政權에게 많은 것을 是正토록 建議하고 있다. 그들의 宣言을 보고 西獨當局과 여론형성층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을 多角度로 檢討중이다. 저 團體 自体가 SED가 조종하는 외곽단체 또는 兪령단체가 아닌지, 혹은 SED權力層의 暗闘 및 動요에서 빚어진 反體制



클럽인지를 예의 觀察하고 있다.

저 獨逸共產主義者 同盟(BDK)이 当局에 通報한 報告와 「民主的 獨逸共產主義者 同盟(BDKD)의 宣言」(Das Manifest des Bundes Demokratischer Kommunisten Deutschlands)을 분석하여 저들이 어떠한 統獨政策(Deutschlandpolitik)을 표방하고 있는가를 確定해 보기로 한다.

獨逸共產主義者 同盟은 東獨의 國家關係會議에 그들 團體의 合法性을 認定해줄 것을 要求했고 또 그들의 活動을 東獨의 機關誌인 「Neues Deutschland」나 여타의 報道機關을 통해서 公表해 줄것을 要求했다. 理念的인 면에서 그들이 내세운 첫째의 命題를 보면 獨逸共產主義者 同盟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및 로자·록셈부르크등의 基本的인 主張에 동조하며 모택동, Ernst Bloch, R.Havemann, Rudolf Bahro 등과 같은 새로운 사상가 및 哲學者들과 맞선다는 것이다. 둘째는 저 共產主義者 同盟은 東獨憲法 第27条 2項에 따라 東獨政府가 言論 및 結社의 自由를 賦與할 것을 要求했다. 셋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헬싱키 決議에 따라 東獨이 人權을 擁護해 주고 특히 인도적인 면에 있어서 제3국과 많이 協力할 것을 要求했다. 人道的인 면의 協力이란 人的交流의 시정이며, 文化 教育面에 있어서 他國과의 關係를 改善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東獨政府에게 약 1,000여명의 政治犯釈放을 要求했고 아울러 유엔의 人權憲章을 지키도록 했다. 다섯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예전의 黨員인 「하베만」教授의 연금상태 (Berlin-Grunheide bei Erkner, Burgwallstrasse)를 풀어줄

것과 또 산업스파이란 혐의로 당국의 심문을 받고있는 Rudolf Bahro를 釈放해 줄것을 要求했다. 여섯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東独政權이 소련의 支援 卽 브레즈네프의 탱크支援을 받아 좌파 팻쇼주의에 흐르는 傾向을 반대한다고 했다. 일곱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Wolf Biermann, Reiner Kunze, Bernd Jentsch, Thomas Brasch, Sarah Kirsch, Tilo Medek, Manfred Krug 등 가수, 文人 및 예술가 등이 다시 国内에 들어와 居住할 수 있도록 復권해 줄것을 要求했다. 여덟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東独의 現存社會主義를 批判하고 반항한 Robert Havemann, Wolf Biermann, Rudolf Bahro, Reiner Kunze, Jürgen Fuchs, Gerulf Pannach, Christian Kunert, Sarah Kirsch, Tilo Medek, Manfred Krug, Bernd Jentsch 및 여타에게 感謝하며, 이들을 同共產主義者 同盟의 名譽會員으로 영입한다고 했다. 아홉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東独의 出版社가 現存 社會主義를 批判한 B. Bloch, R. Havemann, W. Biermann, R. Kunze, J. Fuchs 및 여타인의 著書를 出版해 줄것을 要求했다. 열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東独政府가 人權運動家, 出국을 願하는 者, 文人, 芸術人 및 其他等에 대한 보복을 卽刻 中止하고 政府가 이들과 공개적인 對話를 해줄것을 要求했다. 열한번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思想을 배신하여 온 世界의 물의를 일으킨 東独과 소련의 現 指導層을 警告한다고 했다. 열두번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지금 東独에서 行해지고 있는 人權運動을 지지하며 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人權運動과 특히 체코의 <'77憲章>의 서명자들을 높이 評價하는 同時

에 이들을 성원코저 한다. 열세번째, 共產主義者 同盟은 東獨政府  
 가 이 同盟의 움직임을 繼續 非合法化할 경우 예전의 社會主義  
 統一黨員과 共產主義者 및 民主主義者들이 모두 이 同盟에 加入토  
 복 호소하여 이 同盟의 活動을 積極화할것이다. 이 同盟이 共產  
 主義와 社會主義 및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解明하는한 同同盟의  
 積極的인 運動은 正當한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同盟  
 의 이름으로 獨自的인 弘報室을 마련할 것이며 繼續 弘報活動을  
 展開할 것이다. 46)

東獨政府에 대한 獨逸共產主義者 同盟의 通報(Mitteilungen)가  
 위와 같이 과격하면서도 部分的으로는 西方側에서도 納得할 만한  
 要求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同盟이 中心이 되어 民主的이고 人道  
 主義的으로 思惟하는 共產主義者들을 하나로 묶은 소위 <獨逸의  
 民主的 共產主義者 同盟> (Bund der Demokratischer Kommunis-  
 ten Deutschlands)이 낸 宣言은 위의 것보다 더 浪漫的이고  
 過激한 면이 있다. 저들이 내 놓은 理念的인 見의 基本方向과  
 統一政策을 檢討해 보자. 저들은 理念的인 면에서 共產主義者들에  
 게 신격화 되어있는 마르크스, 安겔스, 레닌 및 歷史의 法則性等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 이전의 고  
 전적 社會주의자들을 더 높이 評價한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 革命以前으로  
 소급해서 英國의 토마스 모어(Th. More)나 이탈리아의 캄파넬라

註 46) Siehe, Mitteilungen des Bundes Deutscher Kommunisten,  
 S. 39 ff.

(Campanella)같은 사람과 또 独逸의 理想主義者들, 啓蒙思想 및 베벨 (A. Bebel), 로자·룩셈부르크, 리브크네히트 (W. Liebknecht)까지 그를 그 思想的 連結을 짓는 重要的 연결 체로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思想体系를 오늘의 反体制 인사인 Bloch, Harich, Havemann, Bahro에까지 연결짓고 있다. 결국 저들은 人道主義的인 삶을 營為하기 위해서 社會의 寄生층에 反하는 鬪爭을 벌이는 것을 社會正義로 알며 共產主義者의 義務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이 지금 살아서 이 敎條化된 共產社會를 본다면 그들은 증오를 금치 못하리라」<sup>47)</sup> 라고 한 말을 보면 저들은 19世紀初半의 空想的 社會主義者 같은 思惟를 하는 것 같다. 저들이 指摘하는 東獨의 內政批判은 論外로 하고 저들이 統獨政策에 대해 어떠한 提議를 하는가를 보자. 첫째, 저들은 觀念보다 民族的인 特色이 強하기 때문에 獨逸은 統一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소련, 월남 및 한국에서의 歷史的인 體驗은 民族的인 特色이 社會的인 特色보다 수명이 길다는 것을 主張한 蘇聯學者들의 理論이 正當함을 立証했다고 말하고 있다.<sup>48)</sup> 저들은 全獨逸이 統一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는 歷史的인 根拠로 1846年の 革命當時 마르크스가 「全獨逸은 統一된 共和國이라야 한다」<sup>49)</sup> 라고 말한 것을 들고 있다. 둘째, 統一을 爭取하기 위해

註 47) Siehe, Das Manifest des Bundes Demokratischer Kommunisten Deutschlands, S. 13.

48) Das Manifest, ebenda., S. 21.

49) Das Manifest, ebenda., S. 21.

獨逸의 社會民主主義者와 社會主義者 및 民主的인 共產主義者들은  
 團結해서 保守勢力에 대한 優位를 確保해야 한다. 그리고 獨逸은  
 東과 西의 교두보로서 平和志向的인 要素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緊  
 張緩和趨勢속에서 모든 外軍이 撤收하고, 軍事機構의 脫退, 東·西獨  
 間의 平和條約締結, 유엔 安保理事會를 통한 中立保障, 全面軍縮과  
 軍縮에서 얻어진 額面的 第4世界에로의 配分, EWG와 RGW의 協力,  
 東獨과 西獨에 있어서 모든 政黨活動의 許容, 自由秘密 選舉로써  
 國民議會의 選出, 國民議會에서의 憲法制定 그리고 모든 社會領域에  
 달하여 段階的인 法的 平準化등을 遂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러한 發展을 準備하기 위해서 그동안 東獨 學者들이 數年에 걸  
 쳐 研究해온 다음과 같은것을 進척시킬 수 있다. 1) GATT에의  
 東獨의 加入, 2) 世界銀行과의 協同, 3) 東獨 마르크貨의 平準化,  
 4) 베를린 마르크貨를 制定해서 東·西獨에 通用되도록 할것 등등  
 이다. 네째, 위와 같은 經濟的인 規制는 結局 政治的인 補完을  
 要求한다. 卽, '본'과 '동베를린' 사이에 協定이 締結되어 勤勞  
 者들의 就業場所가 바뀔경우 現地의, 當該企業에서 育成費를 負擔토  
 록 해야 한다. 이러한 協定措置는 結局 西獨의 實業家들 東獨의  
 企業에 仲裁할 수 있고 또 특히 靑少年 勤勞者들이 잘 育成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하여 獨逸의 勞動者層이 결속되므로써  
 帝國主義를 排除할수 있고 또 政治局의 橫暴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위와 같은 대담한 協力關係는 마침내 西獨의 「貿易 콘체  
 른」과 東獨의 消費機關을 연결짓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東·西  
 獨의 勞組(DGB와 FDGB)가 緊密하게 協力해야 하고, 또 이러한

協力は 靑少年, 스포츠 및 婦女機構分野까지도 擴大 通用되어야 한다. 50)

「民主的 共產主義者 同盟」의 內政改革案이나 統一論이 위와같이 一面으로 대담하고 一面으로 現實性を 缺如한 感傷的인 것이지만 現在의 狀況으로는 이 同盟체가 東獨當局과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 도 선명치 않으며, 또 이들의 동조세력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測定키 어려운 實情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의 運動이 合法화된다면 東獨의 現狀維持政策에는 變化가 일것이 豫想되며, 특히 民族의 特色을 社会的 条件보다 重視한 이들의 統一論도 어느形態론가 繼續 論議되지 않을까 싶다.

---

註 50) Das Manifest, ebenda., S.20-23.

#### 4. 結 論

가. 東獨의 統獨論을 包容하는 西獨의 統一政略

東·西獨間에 基本條約이 締結되었다는 그 自体는 바꾸어 말하면 兩獨이 서로 分斷獨逸의 再結合을 단시일내에 成就하겠다는 方途를 止揚했다는 明確한 解答이 된다. 그렇다면 兩獨은 獨逸民族의 國民國家的 再結合을 영영 拋棄한 것일까? 그것은 決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制度化된 兩獨의 交流增進가운데에 外的 變化가 어느 일방에 有利하게 展開될면 東·西獨의 統一論議는 再論될 것이 틀림없다. 그 理由는 東獨으로서도 社會主義的 獨逸民族의 統一國家 구현이 現狀態 보다는 바람직한 것이고, 또 西獨에게 全獨逸을 <自由>의 土台위에 再統一해 보겠다는 것이 오랜 꿈이기 때문이다. 東·西獨이 지금 再統一(Wiedervereinigung; 國民國家의 再建을 뜻함)이라는 말을 서로 쓰지않고, 있지만 그들 각기의 理念과 體制에 맞는 國民國家(Nation State, Nationalstaat)를 再建하려는 意慾과 目標의 論題는 그들의 現實政治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東獨이 勞動勤勞者의 結속으로(東·西獨 包含) 社會主義的인 獨逸民族의 國家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西獨은 基本法(憲法)의 序文에 「全獨逸 人民은 獨逸의 自由와 統一을 自결로써 完遂·維持해야 한다」라고 아직도 明示해 놓고 있다. 西獨의 聯邦憲法裁判所는 東·西獨의 關係正常化에 대한 基本條約 그 自体를 判決함에 있어 「獨逸의 國家的 統一은 의연히 獨逸民族의 時急한 目標」라고 했으며 「再統一을 試圖하는

데 있어 어떠한 方法이 政治적으로 正当하고 合目的적이냐 하는 것은 西獨政府의 統一專擔 當該機構에 일임한다'라고 했다. 51)

結局 東·西獨이 똑같이 統一에로의 내외여건이 成熟되면 分斷獨逸의 再統一問題를 다시 拳論하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그렇다면 兩獨이 締結한 基本條約은 長期的인 統一達成을 위한 暫定的인 法的 規制나는 問題가 抬頭되는데 이는 반드시 <暫定的>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基本法에 立脚하여 兩獨關係를 正常化하려는 새로운 基底이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施行細則들이 規制되고 있다. 結局 이 基本條約은 基本法이 明示한 再統一의 目標에 違背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결코 <分斷協約>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獨逸人이 언젠가는 國家的 統一을 이룩할 수 있도록 聯邦政府는 何時라도 모든것을 다 할수있다는 것을 판박아 놓은 條約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狀況下에서 統獨의 試圖는 어떠한 方法이 될 것인가? 東獨은 交流속에서 勞働者層의 結束을 피하는 同時에 「民主的 共產主義者 同盟」같은 団体活動을 利用해서 全獨逸 國論의 靑景화를 試圖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한편 西獨은 풍요해진 國民生活과 健全한 政治教育(Politische Bildung)으로 이를 막는 同時에 兩獨關係의 正常化와 유럽의 平和에 寄与하는 政策을 繼續 구사해 나갈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長期的인 統一達成策

註 51) R.Roth, Außenpolitischer Innovation und politische Herrschaftssicherung, S.262 ff., Meisenheim 1976.



으로써 첫째, 東·西獨人이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從屬感情이 繼續 持續되도록 靑少年의 民族教育을 더욱 권장하는 同時에 增大되는 東獨訪問을 契機로 東獨의 同胞에게 物質的인 도움을 주어 同族愛가 持續되도록 애 쓸 것이며, 둘째, 東·西의 緊張緩和에는 積極 協力할 것이며, 셋째, 東·西歐 國家의 協力에도 맨 앞장을 서서 支援을 가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東·西獨이 지금 각기 東·西의 同盟 및 經濟體制와 紐帶되어 있는지라 東·西의 緊張緩和없이 는 그들(東·西獨)의 자유행위권이 결코 넓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單一化되어가는 고도의 産業社會時代에 開放社會와 閉鎖社會가 相互交流할때 優秀體制에 로 기우는 인심의 變化가 일어난다는 수렴이론 (Convergence Theory)의 가설이 西獨의 統獨政策 立案에는 適用 되었다고 筆者는 본다. 1950年代의 西獨의 國論은 「獨逸民族이 分斷되어 있는한 平和는 없다」라는 것이 支配的이었지만 지금은 「유럽의 平和가 維持되지 않는한 獨逸의 民族分斷은 초극될 수 없다」는 方向으로 國論의 變化가 일고 있다.

東·西유럽 國家들이 緊密하게 協力하도록 西獨이 앞장서서 接近·和解하겠다는 것이 東方政策이었는데, 이의 成果를 土臺로 東·西獨은 그들의 行動半徑을 넓히고 한世代後가 될지라도 <平和的 獨逸>의 面貌가 東西歐 諸國에 반다드려졌을때, 「統一獨逸」을 이룩해 보겠다는 것이 西獨의 統獨政略이다.

나. 西獨이 .그리는 統獨후의 國民國家像

서베를린대학의 슈바이글러(Schweigler)教授같은분은 分斷

30年이 지나는 동안, 이젠 東獨住民에도 社會主義的인 獨逸民族의 意識이 싹텃다고 主張하지만, 52) 兩獨의 獨逸人들이 그들 서로가 아주 <남>이라고는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交流增進以後 確認되었다. 그들이 서로 <남>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再統一>이라는 말을 서로 쓰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同族인 그들이 再結合되었으면 하는것을 念願하는 증거라고 보아도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再統一이라고 하면 비스마르크가 세운 「國民國家形態」에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獨逸의 지성들은 지금 대부분 옛 形態에로 되돌아 가는것을 원치않고 있다. 그것은 東·西獨의 再結合 아니 獨逸民族의 再結合을 싫어서가 아니고 예전의 政治的 感覺, 政治的 思惟, 政治的 行動에로 되돌아가기 싫어서이다. 다시 말하면 예전의 獨逸은 平和的인 유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獨逸國民은 유럽이 갖는 증오의 對象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패전후 30年을 지나오면서 民族分斷의 쓰라림을 안은채 經濟大國을 이루기까지 獨逸(西獨을 가리킴)의 지성들은 獨逸史 發展에 대한 깊은 반성을 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獨逸社會는 中世의 身分制 構造가 유난히 오래 維持되었다. 이것을 당시의 獨逸人들은 神이 원했던 秩序라고 確信했었는데 이 점이 바로 獨逸에는 革命이 없었던 歷史的인 理由이다. Reformation을 除外하곤 獨逸人들은 革命이라는 것을 몰랐다. 헤겔같은 哲人도 現存國家를 모든 歷史

---

註52) G.Schweigler, Nationalbewußtsein in der DDR, S.31.,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8/1973

의 結晶이라고 믿었을뿐 自由로운 意思交換에 의해 統治의 調和를 찾을줄을 몰랐다. 53) 獨逸人들에게는 그런 社會的 混亂을 진압시켜 安寧秩序를 維持시켜주는 者가 훌륭한 政治家였지 理性的인 妥協方法으로 統治의 형평을 찾는 것이 偉大한 것이 아니었다. 1871年 北獨中 心의 統獨을 完遂한 비스마르크도 皇帝에게만 責任을 졌지, 議會에 대해서는 아무런 責任을 질 必要가 없었다. 이러한 것을 法的으로 保障한 것이 1871年의 憲法이었다. 비스마르크이후의 皇帝 빌헬름 2世도 <왕권신수설>에 確信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 自身만이 아니고 그 當時 國民의 대부분이 그의 그러한 思惟를 正當한 것이라고 믿고 추종했었다. 1918年의 패전후 바이마르의 共和政이 民主主義를 試圖해 봤지만 世界經濟恐慌의 여파로 인해 國政이 混亂에 빠지자 國難收拾을 히틀러의 권위주의에 맡겼던 것이 대부분의 獨逸人이다. 政黨活動을 活潑히 하고 理性的인 議會政治를 통해서 國難을 打開해 나가야 한다는데엔 獨逸人은 아주 生소했었다. 여기에 바로 獨逸政治의 保守性과 편협성이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패전후 獨逸人들은 狂人 히틀러를 追從했다는데에 수치감을 가지면서 國政의 向背에 입을 다문채 묵묵히 일만 하려들었다. 이러한 國民心理를 利用하여 全國民을 經濟建設에 묶은 아데나워의 國術이 소위 <宰相民主主義> (Kanzlerdemokratie) 요, 이가 낳은 것이 마침내 「라인의 기적」이었다. 라인에 기적으로 풍요한 經濟生活을 누리는 저들 獨逸人들이 1960年代의 東·西 緊張緩和

註 53) Bulletin Nr.66/S.625 ff.(Bonn,den 20.Juni 1978)

趨勢를 보자 이제야 저들은 비로소 <히틀러 獨逸>의 죄과에 대한 反省을 거듭하면서 <先平和 後統一>의 統獨策을 樹立했으며 유럽의 平和와 安保를 위해 앞장서게 된 것이다. 이미 1950年代의 冷戰體制下에서 保守的인 식자층도 「民族과 祖國」의 이름아래 近代獨逸 100年の 역정이 왜곡된 發展을 거듭하지 않았느냐는 反省的인 批判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獨逸人의 이러한 自我批判이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中·小市民層에 까지도 보편化되므로써 平和政策的인 國策遂行을 폭넓게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1970年代의 獨逸人은 이제 自由와 民主主義의 崇高함에 대한 確信을 가지고 있다. 批判은 民主主義의 청량제라는 것과 批判이 없고 社会的 分界가 없는 모든 社會는 政治的인 압제를 당하고 있는 社會라는데 對 대한 確信을 가지고 있다..

東·西獨의 再結合이라는 統獨問題에 對해 지대한 關心을 갖고 있고 分斷의 초극을 東·西獨人은 지금 念願하고 있으나 内外條件이 成熟되기까지는 <再統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판국이다. 內的 條件이란 同一民族이고자 하는 意志의 問題이고 外的 條件이란 東·西유럽의 協力 및 安保體制의 確立이다. 이 두 要因을 成熟시키기 위해 西獨人은 지금 東歐와의 和解와 그의 支援에 앞장섰고, 또 內的 要因을 統獨에로 成熟시키기 위해 저들은 지금 소위 靑少年의 民族教育에 가일층 熱意를 올리고 있다.

저들이 내건 슬로건인즉, 獨逸統一이란 다만 예전의 國民國家的 形態에 되돌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平和와 法治와 自由를 具現하는 獨逸國家의 再建問題라고 말하고 있다.

結局 自由와 平和의 面貌를 가진 새 獨逸國家가 바로 저들이  
이상시하는 統獨後의 國民國家인바, 이의 具現을 위해 저들은 지금  
먼저 저들 自身속에 統獨에로의 政治的 意志를 심고 있다고 그리  
고 그들의 國家와 그들의 이웃에 奉仕하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  
고 있다.



## S U M M A R I U M

Wollen die Deutschen das geteilte Land eines Tages doch wiedervereinigen? Solange die Präambel des Grund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ültigkeit hat, nach der "das gesamte deutsche Volk aufgefordert bleibt, in freier Selbstbestimmung die Einheit und Freiheit Deutschlands zu vollenden", ist es ein Beweis, dass die Deutschen das Problem der deutschen Einheit noch nicht aufgegeben haben, obwohl das Wort Wiedervereinigung praktisch schon in der Zeit der Grossen Koalition (1956-69) auf die "Lange Bank" geschoben worden is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auch in seinem Urteil zum Grundlagen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festgestellt, dass die Wieder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 ein vordringliches nationales Ziel bleibt. Karlsruhe hat auch in einer Entscheidung freilich betont, dass es "den zu politischem Handeln berufenen Organ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lassen bleiben muss zu entscheiden, welche Wege sie zur Herbeiführung der Wiedervereinigung als politisch richtigen und zweckmässigen ansehen". Damit kann verallgemeinert werden, dass die Deutschen die staatliche Einheit der beiden Teilen Deutschlands noch wünschen. Aber

weder das Grundgesetz, no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ben exakt vorgegeben, wie das programmatische Ziel der "Wiedervereinigung" realisiert werden kann. Da liegt die reale Schwierigkeit der Deutschlandpolitik, die der beweglichen Weltpolitik entsprechend flexibel sein sollte.

In dieser Arbeit, deren Thema "Die Vorbereitungs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die deutsche Einheit" lautet, untersucht der Verfasser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1969-1977 einerseits und die Auseinandersetzungen um den Begriff der Nation der BRD und der DDR und zugleich die Bemühungen der politischen Bildung für die Jugend, die Bewahrung des Zusammengehörigkeitsgefühls eines deutschen Volkes erzielen, andererseits.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der beiden Teilen Deutschlands nach dem Grundlagenvertrag, der kein vereinbarter modus vivendi, sondern die gegenseitig ernsthaft gewollte neue Grundlage für die Bestimmung des Verhältnisses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zueinander ist, ist der Verfassers Auffassung nach durchaus positiv fürs Fernziel der Vereinigung der beiden Teilen Deutschlands, da es vor allem durch die Familienzusammenführung das Leben der Menschen Hie- und Drüben erleichtert und ferner durch zunehmenden Verkehr auf allen Gebieten das



Zusammengehörigkeitsgefühl des geteilten deutschen Volkes bewahrt. Es muss also anerkannt werden, dass die Regierung Brandts Mut hatte, mit dem aller ersten Ziel der Bewahrung des Friedens antagonistische Konfrontation abbauend formalisierte Beziehungen mit der DDR aufzunehmen. Ohne dies wäre es unmöglich, heute das friedliche Nebeneinander von partieller Zusammenarbeit beziehungsweise produktiver Konkurrenz etwa im Rahmen der UNO in begrenzter Form immerhin zu geben. Und derzeitige Auseinandersetzung um den Nationsbegriff betrachtet der Verfasser als eine vergebliche, politische Rechtfertigung. Denn die nationale Komponente war und ist jedoch in der Geschichtsstruktur fast aller Länder viel stärker und langlebiger als die soziale. Ferner sieht der Verfasser die politische Bildung bezüglich der Jugend sehr nötig, da die deutsche Einheit von dem Willen einer Nation abhängt. Deutsche Jugend sollte von Deutschland, seiner Teilung und den Grundgedanken seiner Einheit genau wissen. Um diese Aufgabe erfüllen zu können, ist es sehr wünschenswert, dass es in Schulen mehr über die jungste Vergangenheit Deutschlands und auch über die DDR gesprochen wird. Und es ist auch sehr empfehlbar, dass viele jungen Menschen sich durch DDR-Reise eigenen Eindruck

der Situation im anderen Teil Deutschlands verschaffen  
len.

Nach dem Kriegsende ist es schon mehr als 30 Jahre vergangen. In dieser Zeitspanne sind die Deutschen heute soweit beseelt, aus den Fehlern der Vergangenheit lernend ihre Probleme (die staatliche Einheit) im Verhältnis besser gewordener Ost-West-Beziehungen zu lösen. Sie wissen endlich genau, dass die Wieder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auf die zentrale Bestimmungsfaktoren ankommt, nämlich auf die Entwicklung der Ost-West-Beziehungen und hier vor allem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USA und der UdSSR einerseits, und auf die innere Verfasstheit der DDR andererseits.

Dass die Deutschen heute im Namen der Vereinigung der beiden Teilen Deutschlands zu den Verhältnissen des alten Reiches nicht zurückgehen wollen, findet der Verfasser sehr positiv, da das vereinigte Neudeutschland ein Staat sein muss, in den Friede, Recht und Freiheit tief verankert werden müssen. Ein solches Neudeutschland sollte das Ziel der Wiederherstellung eines deutschen Staates sein. Wäre es nicht das neue Bild des deutschen Nationalstaates von morgen?